

## 환경 · 평화: 과거, 현재, 미래

김경미\*

### 국문요약

평화와 환경의 연결성은 직관적으로 명확하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무력 분쟁이나 환경의 오염 및 고갈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을 강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경 · 평화의 의미를 고찰해 본다. 지난 몇 년간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초래했으며, 그로 인해 에코사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일어난 산림과 강유역 파괴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때 환경 운동과 평화 운동의 연대가 일어나면서, 환경과 평화의 실증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냉전 기간 중 핵무기 실험과 군사시설 확장이 초래한 환경 파괴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냉전 종식 이후, 안보정책 담론에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와 분쟁을 연관 짓는 연구가 크게 발전했다. 이후 환경 분쟁 연구는 환경 보전이 평화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와 함께 발전해왔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미래의 갈등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 중립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평화 구축이 필요하다. 평화와 환경의 다양한 상호 관계는 앞으로도 환경 · 평화 개념의 증진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사례 연구도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환경 · 평화, 기후변화, 에코사이드, 베트남 전쟁, 지속가능개발, 환경평화구축

\* 울산라 대학 평화분쟁학과, [Kyungmee.kim@pcr.uu.se](mailto:Kyungmee.kim@pcr.uu.se)

## I. 서론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은 복잡하지만 직관적이다. 건강한 생태계와 깨끗한 환경이 없다면 근원적 지속적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평화의 부재와 전쟁으로 인한 긴장상태는 인간 안보와 사회안정에 장기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에도 불이익을 가지고 온다. 최근 정치 생태학자들 사이에서는 평화는 기후와 환경위기에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Abrahams 2020; Barnett 2019). 기후위기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란 상호 연결된 사회, 경제, 생태 시스템이 위험을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개념이다 (IPCC 2023). 주류 담론은 회복 탄력성의 기준을 현존하는 사회, 경제, 생태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 독자성, 구조를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만,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 구조적 폭력이 재생산된다면 적극적 평화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Nicoson 2021).

평화 구축과 기후변화 회복 탄력성은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기에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Barnett 2019). 하지만 최근까지 두 가지 영역은 각자의 전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평화 구축, 분쟁 해소,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국제기관, 정부, 비정부기관, 민간단체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회복탄력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관련 기관들도 평화 증진이나 분쟁 해결에는 대체로 소극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 평화 증진과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위한 논의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방안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Tarif et al. 2023). 국제 환경 협력과 거버넌스 담론에도 평화증진과 분쟁해결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것도 두가지 목표를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Conca 2001; Ali 2007; Dresse et al. 2019). 환경과 평화를 연결 짓는 “환경·평화”의 개념은 앞서 설명한 노력을 이해하고 증진하는데 결정적이다. 개념적 정의와 역사적 토론을 통해 다방면적 개념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이 이 글의 한가지 목적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환경·평화는 크게 세 가지를 뜻한다. 첫 번째는 바로 평화의 조건 중 하나로 생태와 자연환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이다 (Black et al.

2022). 자연 자원 고갈, 환경문제는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기존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환경과 생태를 평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관점에 따르면 평화협정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rampe, Hegazi, and VanDeveer 2021).

그 다음으로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은 환경문제 해결이나 환경보전 노력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환경평화구축의 의미도 있다. 실제로 많은 국제기구나 비영리기구의 사업들이 다국적 환경 관련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들간 분쟁 위협을 줄이고 평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Kim et al. 2021). 하지만 환경문제에 중점을 둔 협력이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는지는 국가 간 사례에서도 국가 내 사례에서도 확실히 증명된 경우는 손에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부재를 환경의 위협으로 보고 환경을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에서의 환경·평화를 말한다 (Selby et al. 2024). 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이를 보여주는 자명한 예시이다. 이외에도 구조적 폭력과 착취가 환경파괴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포괄적 의미의 평화의 부재도 앞서 말한 연관성을 보여 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환경·평화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을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도입부에 이어, “환경·평화의 세 가지 기제”에서는 이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관점들을 간략히 서술한다. 그다음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평화”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 시기까지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의 접점을 살펴본다. “탈냉전 후 환경·평화의 안보화”에서는 냉전 이후 신안보 담론이 떠오르면서 환경의 안보화가 가속화된 시기를 논의한다. “환경협력, 환경평화구축”에서는 안보화에 반하는 실증적 연구와 함께 부상한 환경평화구축의 배경을 다룬다. “인간안보와 환경, 기후변화”는 2000년대 인간안보를 통해 환경·평화에 인간 중심의 면모가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기후 평화 안보 담론”에서는 2010년 이후 본격화된 기후변화와 안보에 대한 정책 담론의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 환경·평화 연구와 정책 담론의 현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과 환경안보,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환경·평화가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 II. 환경·평화의 세 가지 기제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은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론화하는 세 가지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환경 오염과 자연 자원 고갈이 심화되었을 때 사회적 분쟁으로 일어나거나 심화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여기서 사회적 분쟁은 농부들이 관개 시설이나 농경지 사용을 두고 벌이는 다툼과 같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갈등도 있지만, 집단 간 무력 분쟁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헬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유목 혹은 유목 농경 집단을 둘러싼 갈등 심화가 있다. 유목 공동체는 목초지와 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이들의 생계 수단과 삶의 방식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기간의 연장, 물과 목초지 분포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Herrero 2006). 그런 가운데, 사헬 지역에 장기화된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이 활성화되고, 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대인 무기가 회수되지 않으면서 유목 공동체들이 쉽게 대인 살상 무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0). 물과 목초지, 혹은 가축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공동체 간 무력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SIPRI 2022). 헬 지역에서 정부들이 유목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국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유목 집단을 둘러싼 분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Benjaminsen 2024). 평화 구축을 위해 자연 자원 관리가 동반되고, 자연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이유다 (Selby and Hoffmann 2014).

두 번째 연관성은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가 자연 훼손과 환경 파괴를 동반하여 구조적 불안을 장기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20). 전쟁으로 인한 자연파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인해 학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카르손(Kherson) 지역에 있는 카코브카(Kakhovka) 수력발전 댐이 전쟁 중 파괴되면서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와 농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Shumilova et al. 2023). 댐 붕괴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고 농작자를 훼손해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해당 지역에 보관되어 있던 수력 발전용 기계류 150톤이 강으로

유입되었고, 홍수로 인해 산업 폐기물이 강과 토양에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켰다 (Naddaf 2023). 호브카 댐의 붕괴로 150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에서 가장 큰 핵 발전소인 자포리즈지아(Zaporizhzhia) 발전소에 안전할 냉각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Weinthal and Bruch 2023).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된 고엽제와 같이 전쟁 중 일어난 자연 파괴는 오랜 기간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Zierler 2011).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바로 전쟁 시 의도적인 환경 파괴를 일으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환경의 ‘무기화’를 금하는 국제법에서 잘 나타난다. 법적인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지만, 법적 처벌의 가능성 보다 전쟁 자체를 환경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과 당위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King 2015).

세 번째 연관성은 무력 분쟁이 사회적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공동체나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저하시켜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무력 분쟁의 부정적 영향은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겪는 문제만이 아니다. 2023년 무력 분쟁을 피해 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총 1억 1,730만 명에 달한다 (UNHCR, n.d.). 이들이 거주하는 난민촌과 같은 임시 거주지들은 기후재해에 취약하고 깨끗한 물과 식량을 공급받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난민들 중 미성년자와 어린이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은 열악한 교육시설과 보건시설로 인해 사실상 미래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Aden 2023).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로 더욱 심각해진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난민들이나 무장 폭력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회복이 더딜 수도, 혹은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된다면, 장기간 분쟁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능동적 평화를 찾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세가지 기제는 환경과 평화를 연관시켜보는 세가지 대표적 견해에 불과하다 (Ide et al. 2023). 이 외에도 다른 관점 중 하나는 환경변화와 무력분쟁의 연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정치생태학 (Political Ecology)적 관점이다.

토르 벤자민슨(Tor A. Benjaminsen)과 같은 정치생태학자들은 오랫동안

기후변화가 사헬 지역의 정치적 불안과 무력분쟁이 미치는 영향을 부정해 왔다 (Benjaminsen 2024).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기후변화가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초창기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Benjaminsen 2008). 그의 주장은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는 정치경제와 밀접한 영향이 있고 환경과 권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접근법이 문제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면, 유목민들이 주가 된 말리에서 일어난 투렉 (Tuareg) 반란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에 대해 벤자민슨은 가뭄이나 환경 변화 보다는 프랑스 식민시대부터 사헬지역의 농경 공동체를 우대하고 유목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차별한 정부 정책이 불러온 부정적인 영향을 인류학적 방법론으로 밝혔다 (Benjaminsen 2008). 그의 말처럼 사헬 지역의 환경변화는 일관적이지 않고 무조건 유목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관시키기에는 부족한점이 있다 (Nagarajan et al. 2024).

이와 같이 환경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고 개인이나 집단 혹은 공동체의 생계수단, 식량 조달 방법, 주거방식, 그리고 부의 축적 정도에 따라 받는 영향도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환경·평화를 연구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외에도 현재 많은 정치생태학자들은 젠더, 카스트, 인종과 민족, 도시와 농촌 등과 같은 사회적 카테고리가 가진 물질적인 의미와 교차성이 환경 정의와 능동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Kaijser and Kronsell 2014; Mikulewicz et al. 2023; Sultana 2020).

현재 환경·평화를 둘러싼 학계의 담론은 지금까지 평화와 환경을 연관 짓는 관점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 시기, 탈냉전 후 안보화 과정, 2000년대의 인간 안보 대두에 따른 변화와 같은 역사적 변화에 대한 서술이다.

### Ⅲ.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탈냉전 시기

#### 1. 사회 운동과 환경·평화

2차 세계대전동안 일어난 인명살상은 인류에게 집단적 충격을 안겨다 주

었다. 전쟁으로 인한 살상과 파괴의 규모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규모였고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 혹은 제노사이드는 파시즘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런 도덕적 충격은 국제안보와 평화라는 이상을 목표로 국제연합이 설립되는 계기가 된다. 전범들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처벌을 받고, 유엔 헌장을 비롯해 국가간 침공을 막기 위한 국제법들이 제정되었다. 핵폭탄 투하와 함께 세계 2차 대전의 종결된 것은 평화를 위한 커다란 숙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했다.

이념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결국 냉전체제가 시작되었다. 냉전 동안 군비 확산의 일환으로 핵 보유국들은 핵확산을 통해 핵탄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최근에 들어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46년에서 1958년 사이에 식민 지배하에 있던 태평양 섬에서 67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핵실험으로 인해 비키니 (Bikini)섬과 롱게랍(Rongelap)섬에 살던 거주민들은 모두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 에네웨탁 (Eniwetak)과 우트릭 (Utrik)섬에 살고 있는 수백명의 주민들은 지금도 미군이 건설한 핵폐기물시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살고 있다. 과거 핵실험의 영향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기를 맞이한 마셜제도가 기후변화 대응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Bordner, Ferguson, and Ortolano 2020).

핵실험의 여파는 지금 현재까지 유전적으로 비키니와 롱게랍섬 조상을 둔 마셜제도 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핵폐기물 보관시설이 해수면 상승과 태풍으로 파괴 된다면 태평양 섬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Gerrard 2015). 반세기가 지난 이후, 미국이 마셜제도에 인권 유린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마셜제도 정부의 주장이 양 국가간 관계에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Niedenthal 2024). 미국이 그 당시에 핵을 인류를 위한, 평화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던 것의 역설을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지만 잘 보여준다.

1960년대는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운동 영역을 크게 확장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었던 시대이다. 이때 전세계가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해 크게 변화했다. 그들이 갈망했던 자유는 폭력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포함한다. 이때 새롭게 나타난 평화운동가들은 폭력과 억압을 대표하는 파시즘과 소련체제만을 비판하지 않았다.

냉전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제하고 억압한 사례가 빈번했고, 평화운동은 징집제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대운동이기도 했다.

이시기에 요한 갈통 (Johan Galtung)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가 부각되기도 했다. 갈통은 평화를 구조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 보고, 구조적 폭력을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를 뜻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확립하였다 (Galtung 1969). 적극적 평화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깨끗한 물, 공기, 토양과 같은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갈통은 이후에 제국주의와 같이 불평등을 유발하는 세계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적을 이어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들, 흔히 식민지대로 이득을 본 제국들이 자연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재생산되는 불평등을 구조적 폭력의 큰 틀로 해석하기도 했다 (Galtung 1971). 이처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적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론적인 발전은 평화를 주창하는 사회운동의 성장과 같은 시대에 이루어 졌다. 학문적 연구와 평화운동이 확산하게 된 중요한 시대적 배경은 바로 베트남에서 일어난 내전과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학전이다.

베트남 전쟁은 식민지 청산 과정에서 강대국의 개입과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확대 되었다. 전쟁에 동원된 군인과 민간인들이 크게 희생된 역사적 참극이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했으며, 외교 정책의 큰 실패였다. 미국 정부 수뇌부는 반공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남베트남 정부를 지지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무력 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시작했으나, 남베트남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미국이 제공한 군사 원조는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국 정부는 견잡을 수 없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게 된다. 1964년에서 1973년 사이, 미국은 2백만 명이 넘는 남성을 징병하여 베트남 전쟁에 투입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실시된 징병제도였다. 징병제는 자유화를 부르짖으며 냉전체제와 국가의 통제에 반발하던 68세대에게 큰 충격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일어난 저항 중 하나로 반전 운동이 미국 대중의 큰 지지를 얻었고, 미국 내 반전 운동의 성공은 저항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시기에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의 공조가 일어나는데, 그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반전운동가들이 환경의 무기화를 비판하고 반대한 것이다. 미 공군이 베트남 북부의 경제를 타격하기 위한 운하 폭격작전을 구상하였다. 하노이 근처에 있는 제방을 폭격하면 홍강(The Red River)의 홍수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벵농사 지대의 침수와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략인데, 이 작전이 실행에 옮겨졌다면 많은 민간인들이 홍수와 기근으로 희생당했을 것이다. 미군은 이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진다 (Grech-Madin 2021, 100). 미군은 지속적으로 이 혐의를 부정해 왔지만, 계획적이었던 아니든 베트남 북부지역에 가해진 폭격으로 운하가 파괴된 사례는 여러차례 기록되었다 (Melcher 1972). 베트남 북부지역 홍강 유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거주민이 천5백만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이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자연환경파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환경의 무기화는 환경 파괴 범죄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전쟁범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환경의 무기화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예멘 내전,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이슬람 극단주의자 (Islamic State)의 리비아와 이라크 침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King 2015; von Lossow 2016).

미군의 제방 파괴 작전은 베트남전 중에 일어난 에코사이드의 일각에 불과하다. 미국은 고엽제를 부분별 하게 사용하여 베트남과 인접국가의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참전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Zierler 2011). 미군은 전쟁 중 오랜 기간 동안 고엽제를 살포했고 그 결과로 인해 베트남의 산림의 1/5가 전쟁 중 사라졌다.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뿐만 아니라 남베트남해방전선군의 물자 조달 경로였던 호치민 루트에 포함된 인접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고엽제의 피해를 입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끝없이 펼쳐진 밀림, 망그로브 숲, 늪지대와 같은 야생의 자연환경은 베트남을 비호해주는 방패였다. 베트남의 열대성 기후와 자연 환경이 익숙하지 않았던 미군은 베트남의 자연환경 자체를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인식은 자연을 전략적으로 파괴하게 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Sudilovsky 2021). 부족한 데이터와 연구로 인해 고엽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엽제 뿐만 아니라 전쟁 중 사용된 포탄과 화학무기, 그리고 고엽제로 인한 산림 면적

의 대규모 축소를 고려 할 때 베트남 전쟁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을 것이다. 자연과 생태계 뿐만 아니라 참전했던 군인과 고엽제에 오랜 기간 노출된 민간인들은 긴 세월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고엽제로 인한 장애, 임신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사산아 및 장애아 출산과 같은 결과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 후유증으로 남았다.

전쟁 중 고엽제 살포로 인한 에코사이드 사례는 안타깝게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은 1950년대 공산주의자 소탕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했는데, 이때 고엽제와 유사한 화학적 제초제를 말레이 반도에 있는 농지와 산림에 대규모 살포했다. 이로 인해 말레이 반도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농노계급의 빈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대규모 자연파괴가 일어났다 (Sodhy 1987). 한반도에서도 1960년대에 주한미군이 휴전선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하기도 했다 (백환기 2000). 이와 같은 에코사이드에 대한 경각심은 베트남 전 이후 점차 높아지게 되었으며, 환경·평화의 중요성을 조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현재, 2024년 에코사이드에 대한 토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국제 담론의 하나로 거론되고있다 (EU Advisory Mission in Ukraine 2023). 우크라이나 학자들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파괴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자국법과 국제법을 통해 묻기 위한 절차를 탐구 중이다 (Kovalenko et al. 2024).

이 절에서 냉전 기간 동안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 중 핵실험과 베트남 전쟁에 중점을 들어 환경·평화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군사화와 전쟁 중 자연파괴는 멈추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평화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냉전 이후에도 계속된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이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갈등 심화되기도 했다. 냉전 후 세계 안보체제의 변화는 환경·평화 연구가 활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때 환경 안보에 관련한 담론이 중요하다.

## 2. 탈냉전 후 환경의 안보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안보에 대한 담론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미국

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붕괴되면서 핵전쟁의 위험이 크게 축소되었다. 안보를 존재적 위기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미래의 존재를 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시기에 전통적 안보위협 요소를 넘어서 안보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환경, 경제, 사회문제와 같이 비전통적 영역이 안보 문제로 다루어 지게 된다 (Buzan 1997).

환경의 안보화는 현 환경·평화 담론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에 여러 정치학자들이 환경문제, 자연자원고갈을 무력분쟁의 원인으로 제시한 연구들을 발표한다 (Gleick 1993; Homer-Dixon 1991). 이들의 연구는 인구증가와 환경고갈을 연관 짓는 신말머스주의(Neo Malthusian)에 기반하여 일인당 사용 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양이 감소하고 감소치가 한계점을 넘어서면 경쟁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소 결정론적 기제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Rønnfeldt 1997). 이런 주장은 기후변화를 안보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는 최근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Kim and Garcia 2023; Nordqvist and Krampe 2018). 결정론적 요소와 연관성 위주의 이론적 가정을 빼고 보자면, 환경 안보연구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요소가 어떻게 분쟁과 연관되는지, 혹은 더 근본적으로 사회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 할 수 있다 .

이시기에 떠오른 중요한 이론은 바로 ‘물전쟁 (water wars)’에 대한 가설이다 (Starr 1991). 물은 식량과 다르게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달하기가 어렵고 매일 일정량의 깨끗한 물이 인간의 생존과 식량생산과 산업활동에 필요하다는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환경관련 분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자연자원이다. 조이스 스타 (Joyce Starr)가 중동의 물부족 심화와 계속되는 중동 전쟁을 연관시켜 다음 중동 전쟁을 물을 두고 일어나는 물전쟁이 될 것이라는 논설을 발표 했을 때 펜타곤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큼 인기있는 이론이 되었다. 그 이후 꾸준히 물전쟁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Amery 2002; Haftendorn 2000; Swain 2001; Toset, Gleditsch, and Hegre 2000). 이 시기에 중동 뿐만 아니라 인더스 강 유역,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나일 강 유역 국가들이 수력발전과 관개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외교적 대립을 하기도 했다. 이후 물부족으로 인한 분쟁은 정책 좌담회와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다루는 주제가 된다. 일부 학자들은 물전쟁 이론을 뒷받침 할 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시했다 (Barnett 2000; Selby 2005).

이런 관점은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이 기계적 인과론과 결정론적 접근을 지양하는 방식과도 비슷하다.

환경 안보의 등장과 환경의 안보화가 심화되면서 환경문제는 더이상 환경 관련 정부 부처에서 다루어 지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외교부, 혹은 정부 내각에서 토론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때로 고위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Græger 1996; Käkönen 1994).

환경안보 문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사동원과 군대배치, 무기 증량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수단이 아니다. 대신 비군사적 정책이 환경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태계보호와 환경보전, 물관리의 선진화 기법을 통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농업기술도 물 관련 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기에 환경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환경안보는 2000년 초반에 대두된 인간안보 (human security)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이 연관성은 이후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Barnett and Adger 2007).

### 3. 환경협력, 환경평화구축

환경 고갈이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 할 때, 아론 울프 (Aaron Wolf)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물을 둘러싼 대립이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봐도 무난하고 대립은 결국 국가간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발표 했다 (Wolf 1998; 1999). 이 연구를 시작으로 다자간 협력 사례와 강유역을 둘러싼 협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을 둘러싼 협력이 국제관계와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Giordano, Giordano, and Wolf 2002; Kliot, Shmueli, and Shamir 2001; Sadoff and Grey 2002; Yoffe, Wolf, and Giordano 2003). 유네스코와 유엔 환경프로그램에서 물협력과 평화, 그리고 무력분쟁과 자연자원관리의 연관성을 탐구하게 된 것도 이 때이다 (Krampe 2021; Sjöstedt 2013).

환경협력은 다양한 방식과 행위자를 통해서 증진할 수 있다. 국가 간 환경 협력이 있기도 하지만, 민간분야와 국가간 외교 관계, 시민사회와 민간 대학과 같은 학자들이 주가 되기도 하고, 트랙2 외교나 민간 외교도 환경협력의 중요한 방식이다 (Conca 2001). 과학적 지식 교환이나 연구 협력, 정책 토론과 같은 비공식 행사나 활동이 환경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문제사항을 국가 부처 간 협의나 공식적인 외교적 절차를 통해 협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도 환경협력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다양한 환경 협력이 평화로 이어질까? 국가 간 혹은 공동체 간 환경문제 해결을 비폭력적 방법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환경 협력은 신뢰 증진과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rampe, Hegazi, and VanDeveer 2021). 이러한 기제는 평화구축의 기제과도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다. 그 외에도 환경문제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했을 때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쟁 예방에 기여 할 수도 있다. 환경평화구축 노력이 최근 추세와 되고 사업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명한 기제와 평화 구축에 대한 결과를 앞으로 실증적으로 연구자들이 증명해야 할 것 이다.

이론의 발전과 실증적 논쟁이 계속되면서 환경평화구축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2012년에는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4천명이 넘는 회원이 150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EnPax, n.d.). 환경평화구축협회는 연구자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실무자와 학자들이 함께하는 협회라는 점이 특이하다.

환경협력이 평화구축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매력적이다. 지속 가능성과 평화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협력이 평화로 이어진 사례는 손 꼽는다. 요르단강 유역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의 협력은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이다 (EcoPeace Middle East 2015; Jägerskog 2003).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물관리를 위해 협력을 이어 왔다는 점에서 평화를 점진적으로 증진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으로 요르단 강 유역 협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요르단강 서안지구 (West Bank)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착민을 비호하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충돌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Amira 2021; Veracini 2013). 가장 중요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평화 구축의 의미를 묻는 시각도 등장했다. 이후 표면적이거나 유지되었던 평화는 결국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력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끝이 났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목표로 한 대규모 공습, 지상군 투입, 그리고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레바논과 이란과 교전에 들어가면서 환경협력과 같이 민간인 주도로 행해졌던 평화구축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Schwartzstein 2023).

환경협력이 궁극적 평화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비폭력, 외교적 방법으로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국적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다 (Ali 2024). 오랜 기간을 협력을 통해 지역적, 국제적 합의가 도출 될 수도 있다. 생물다양성과 물 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이런 성과가 특히 돋보이는데, 생물다양성협약 (CBD)같은 경우 자국내 자연보전 증진을 통해 종보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엔물협약 (UN Watercourse Convention)은 강유역을 공유하는 국가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본적 원칙을 확립하여 분쟁의 위험을 낮춘다는 효과가 있다 (Rieu-Clarke, Moynihan, and Magsig 2012). 유엔물협약의 경우 채택에 오랜 기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 국가들 중 이웃국가들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물사용이 자기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평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특히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말이다. 정치적으로 시작된 분쟁이라도 오랜 기간동안 무력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인들도 분쟁과 관련된 일에 연루 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져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Bar-Tal 2007). 장기적 폭력과 전쟁의 긴장상태를 겪고 있는 사회에서 협력과 같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근본적 해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하지만 환경을 둘러싼 협력으로 위험 요소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평화를 한단계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미시적 평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평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행위로서 환경협력이 고려 될 수 있겠다 (Heo Ji Young 2021). 이와 같은 시각은 다음 절에 설명할 평화와 인간안보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 4. 인간안보와 환경, 기후변화

환경의 안보화는 국제 관계에서 환경 거버넌스를 접근하는 방법과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지정학적 권력다툼과 물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국제 관계 이론을 환경 안보 연구에 접목했을 때 필연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혹은 생태의 보존과 같이 국가가 아닌 안보의 주체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안보의 개념은 환경·평화 연구에서 인간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존엄성에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는 의의가 있다.

유엔 인간안보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부상한 인간안보의 개념은 개발, 환경, 그리고 안보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지향한다 (Human Security Centre 2005; Paris 2001). 기존 안보개념이 국가와 국제 사회의 영속을 기반으로 했다면 (Buzan 1991), 인간안보는 개인의 영속과 안전을 안보의 목적으로 본다. 이는 기존 안보개념에서 국가만을 안보의 주체로 보는 시각과는 다르다. 국가중심 안보 개념은 국가가 국민의 안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자국민을 타국의 침공이나 탄압에서 지켜 주는 안보의 주체로 본다. 이러한 전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을 오랫동안 정당화 해왔다. 인간안보를 통해 사회와 개인이 안보의 주체로 등극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과 기본권이 개발과 환경문제를 넘어 정치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Gasper 2005). 인간안보를 넘어서 생태안보를 살펴보면 인간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생태자체의 생존과 영속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하기도 한다 (Smith and Schoonover 2023).

인간안보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간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연구로 이어져,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Gasper 2005). 환경문제와 자연 재해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발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영향은 정치적 불안이나 무력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도 이때 처음 주목받게 된다 (UN Development Programme 1994). 종교, 인종, 카스트, 계급에 기인한 구조적 차별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영향이 깊다는 것은 후속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 부분이다 (Thomas and

Warner 2019). 환경·평화 연구는 인간안보를 통해 국가와 전통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국가 중심적 관점을 벗어나 더 포괄적으로 안보와 평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최근 부상한 기후평화안보 담론의 기반이 된다.

#### IV. 기후평화안보 담론

최근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가 평화와 안보에 영향에 대해 가설이 구체화되었다 (Mobjörk, Krampe, and Tarif 2020). 기후변화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저지대와 해안지역을 침수를 유발한다. 그뿐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식량 생산과 생계수단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농업, 산림업, 어업과 같은 1차산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정치적 불안과 분쟁이 있는 남반구에 있는 주민 중 1차 산업 종사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계위협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저지대와 해안지역 침수로 인한 인구 이동, 또는 기후변화와 식량 공급을 이유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IPCC 2022). 사막화와 열파가 심각해 지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같은 건조지대가 앞으로 인류가 살기 적합할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Zittis et al. 2021). 기후변화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잠재적으로 정치적 안보적 영향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있다 (IPCC 2022).

기후변화가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 중 다수가 정치적 불안과 무력분쟁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심화되고 있다 (Busby 2021).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가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복탄력성을 통해 사회, 경제와 생태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IPCC 2023). 분쟁지역이나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 정부들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미래의 안보위험이 심화될 위기에 있다 (Buhaug and von Uexkull 2021).

특히 기후변화는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화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국가들 간의 특이성이나 나라마다 고유한 국내적 특성을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국가 내에서도 다른 기후적, 경제개발 척도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나라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노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린이와 미성년자, 토착민 (indigenous people)을 꼽는데, 저임금노동자, 야외에서 일하는 건축 노동자나 농업, 어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정치적으로 차별 받는 집단이나 물질적인 결핍이나 구조적인 장애물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부정적 영향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고 이들이 기후변화에 그대로 노출될 때 그들의 인간안보는 위협에 처한다 (Adger et al. 2014).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무장폭력을 고조, 심화되거나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증명되었다 (Buhaug 2015).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환경변화는 무력분쟁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Kim and Garcia 2023; Nordqvist and Krampe 2018; Van Baalen and Mobjörk 2018). 혹은 생태정치학적 관점에 따르면 정치, 경제 정책이 환경변화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한번 정치경제 혹은 문화적인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된다 (Selby et al. 2024).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결과적으로 정치의 문제이고 거버넌스와 사회정치적 저항을 통해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생태정치학과 환경·평화 연구의 연계는 최근 더 깊어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기후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취약성을 보안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긴밀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후안보가 정책 담화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유엔 기후협약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 (Kim et al. 2024; Tarif et al. 2023). 이는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군사적 해결책이 대신 비군사적 해결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안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후안보 담론을 통해 최근 국방부와 군사동맹기구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NATO, n.d.). 이는 기후변화가 군사작전이나 군사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정책 발전으로 이어지는 추세다. 군대와 군사작전이 전체 온실가스의 1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추산도 있는데 (Belcher et al. 2020), 전세계적으로 투명한 데이터의 부재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럽과 중동에서의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군비지출이 늘어나고 군사작전과 훈련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를 볼 때 국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산출하고 이를 유엔기후협약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V. 환경 · 평화와 한반도

앞서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은 다방면으로 살펴보았다. 환경 · 평화라는 단어가 앞서 설명한 연관성을 통틀어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단어가 한반도에서 의미하는 바도 여러가지이다. 한국전쟁의 피해로 인명살상과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산림훼손이 있었다. 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휴전상태로 아직도 남북한의 대립상황이 우리나라의 안보위험으로 남아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는 인간안보와 인간개발에도 큰 성과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달리 환경관리와 환경보전 정책은 뒤늦게 발달한 부분이 있다. 산림화, 수질개선, 환경보전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물관리의 선진화가 이루어 지기도 했다. 최근에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같은 새로운 환경문제가 떠오르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국내 감축 정책과 더불어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Lee 2020).

한반도는 지난 30년간 급격한 기후변화 겪었고 농작물과 어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 2012).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변화와 날씨변화는 남한과 북한이 겪고 있지만,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1차산업에 의존도가 낮은 남한과 달리 식량생산과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훨씬 더 취약한 편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북한이 겪는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더 키우고 식량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삼언 and 박소영 2022). 이와 같은 어려움이 북한의 정치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설명한 환경협력은 남북관계에도 적용 할 수 있는데 비무장공원에 평화공원의 설립과 임진강과 남북한 국경을 넘나드는 소양강 유역 관리를 통한 협력과 같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Man, Boosik, and Il-Pyo 2008; 손기웅 2006; 2013). 남북간 환경 협력사례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환경 협력이 장기적인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전쟁 이후, 전쟁의 긴장으로 인해 DMZ 지역이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환경과 평화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환경과 평화가 항상 연동되어서 가는 것인지는 고찰이 필요한 영역이다. DMZ의 경우에는 평화가 오면 오히려 개발이 시작되어서 파괴가 될 영역이다. 환경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을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남북한은 1994년에 유엔 환경다양성 협약을 사인했고 2015년 유엔 기후협약에도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국제 환경협력 꾸준히 가지는 관심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영향력으로 변환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예찬 2023).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을 볼 때 환경과 평화의 연동관계 혹은 상관관계는 복잡 할 수 있다. 생태다양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 평화가 온다면 경제 활동과 기반산업 개발의 공간으로 탈바꿈 할 가능성이 크다. 콜롬비아의 평화 협정으로 인해 이전까지 반군의 근거지였던 밀림이 농지로 바뀌면서 환경파괴가 일어난 것처럼, 평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평화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이 이제 환경을 넘어서 생태를 바라보기에 인간 외 다른 생물과의 공생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생태평화도 이런 점에서는 고려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환경을 넘어 생태까지 보장하는 평화를 어떻게 이론화, 구체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

## Ⅵ. 결론

환경·평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글에서 설명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은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기여한 환경·평화에 대한 담론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에코사이드, 환경 안보, 기후 안보, 그리고 환경 평화 구축과 같은 중요한 개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환경과 평화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적 사건과 시대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체계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부재다. 이 글은 역사적 흐름을 다루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토론보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와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사례보다는 학술적 이론의 발전에 집중하여 환경과 평화를 연결 짓는 이론의 확장을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증적인 연구는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지금 2024년, 세계 평화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있다.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수단, 미얀마, 예멘, 그리고 콜롬비아와 같은 대규모 무력 분쟁에 빠진 나라들을 볼 때, 세계 평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평화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경미**는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평화학과 연구원이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겸임연구원이다. 환경과 기후변화가 평화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분쟁 지역에 위치한 수력발전 사업과 시민 저항에 관한 논문이 *Environment and Security*에 등재되었으며, *Journal of Hydrolog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Hydrological Sciences Journal*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 참고문헌

- Abrahams, Daniel. 2020. "Conflict in Abundance and Peacebuilding in Scarc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Conflict." *World Development* 132 (August):104998.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0.104998>.
- Aden, Hassan. 2023. "Building Futures through Refugee Education: Aspirations, Navigation, and (Non-)Citizenship." PhD Dissertation, Gothenburg: University of Gothenburg. <https://gupea.ub.gu.se/handle/2077/76356>.
- Adger, W Neil, Juan M Pulhin, Jon Barnett, Geoffrey D Dabelko, Grete K Hovelsrud, Marc Levy, Ursula Oswald Spring, and Coleen H Vogel. 2014. "Human Security." In *Climate Change 2014: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art A: Global and Sectoral Aspect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755-792. United Kingdom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i, Saleem H, ed. 2007. *Peace Parks: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http://site.ebrary.com/id/10188265>.
- Ali, Saleem H. 2024. "Environmental Peacebuilding between India and Pakistan." *Forbes*, 2024. <https://www.forbes.com/sites/saleemali/2024/10/16/environmental-peacebuilding-between-india-and-pakistan/>.
- Amery, Hussein A. 2002. "Water Wars in the Middle East: A Looming Threat." *The Geographical Journal* 168 (4): 313-323. <https://doi.org/10.1111/j.0016-7398.2002.00058.x>.
- Amira, Saad. 2021. "The Slow Violence of Israeli Settler-Colonialism and the Political Ecology of Ethnic Cleansing in the West Bank." *Settler Colonial Studies* 11 (4): 512-532. <https://doi.org/10.1080/2201473X.2021.2007747>.
- Barnett, Jon. 2000. "Destabilizing the Environment—Conflict Thesi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 (2): 271-288. <https://doi.org/10.1017/>

S0260210500002710.

- \_\_\_\_\_. 2019.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 Climate Resilient Pe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3 (5): 927-936. <https://doi.org/10.1177/0309132518798077>.
- Barnett, Jon, and W. Neil Adger. 2007. "Climate Change, Human 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Political Geography, Climate Change and Conflict*, 26 (6): 639-655. <https://doi.org/10.1016/j.polgeo.2007.03.003>.
- Bar-Tal, Daniel.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11): 1430-1453.
- Belcher, Oliver, Patrick Bigger, Ben Neimark, and Cara Kennelly. 2020. "Hidden Carbon Costs of the 'Everywhere War': Logistics, Geopolitical Ecology, and the Carbon Boot-print of the US Militar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45 (1): 65-80. <https://doi.org/10.1111/tran.12319>.
- Benjaminsen, Tor A. 2008. "Does Supply-Induced Scarcity Drive Violent Conflicts in the African Sahel? The Case of the Tuareg Rebellion in Northern Mali." *Journal of Peace Research* 45 (6): 819-836. <https://doi.org/10.1177/0022343308096158>.
- \_\_\_\_\_. 2024. *Climate Security and Climate Justice: Recognizing Context in the Sahel*. Edward Elgar Publishing. <https://doi.org/10.4337/9781035325184>.
- Black, Richard, Joshua Busby, Geoffrey D. Dabelko, Cedric De Coning, Hafsa Maalim, Claire McAllister, Melvis Ndiloseh, et al. 2022. "Environment of Peace: Security in a New Era of Risk."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doi.org/10.55163/LCLS7037>.
- Bordner, Autumn S., Caroline E. Ferguson, and Leonard Ortolano. 2020. "Colonial Dynamics Limit Climate Adaptation in Oceania: Perspectives from the Marshall Island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61 (March): 102054. <https://doi.org/10.1016/j.gloenvcha.2020.102054>.
- Buhaug, Halvard. 2015. "Climate-Conflict Research: Some Reflections on the

- Way Forward.” *WIREs Climate Change* 6 (3): 269-275. <https://doi.org/10.1002/wcc.336>.
- Buhaug, Halvard, and Nina von Uexkull. 2021. “Vicious Circles: Violence, Vulnerability, and Climate Change.”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46 (1): 545-568. <https://doi.org/10.1146/annurev-environ-012220-014708>.
- Busby, Joshua W. 2021. “Beyond Internal Conflict: The Emergent Practice of Climate Security.” *Journal of Peace Research* 58 (1): 186-194. <https://doi.org/10.1177/0022343320971019>.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 and Fear.”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 \_\_\_\_\_. 1997.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 (1): 5-28.
- Conca, Ken. 2001.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Peace.” In *Environmental Conflict*, edited by Paul Diehl and Nils Petter Gleditsch, 225-247. Boulder, CO; Oxford: Westview Press.
- Dresse, Anaïs, Itay Fischhendler, Jonas Østergaard Nielsen, and Dimitrios Zikos. 2019. “Environmental Peacebuilding: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Cooperation and Conflict* 54 (1): 99-119. <https://doi.org/10.1177/0010836718808331>.
- EcoPeace Middle East. 2015. “Regional NGO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Jordan Valley.” Amman: EcoPeace Middle East. [https://old.ecopeaceme.org/wp-content/uploads/2020/09/Regional\\_NGO\\_Master\\_Plan\\_Final.pdf](https://old.ecopeaceme.org/wp-content/uploads/2020/09/Regional_NGO_Master_Plan_Final.pdf).
- EnPax. n.d. “Community of Practice.” Environmental Peacebuilding Association. Accessed November 1, 2024. <https://www.environmentalpeacebuilding.org/about/community-of-practice/>.
- EU Advisory Mission in Ukraine. 2023. “Ecocide in Ukraine Won’t Go Unpunished. United for Justice. United for Nature.” October 25, 2023. <https://www.euam-ukraine.eu/news/ecocide-in-ukraine-won-t-go-unpunished->

united-for-justice-united-for-nature/.

-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 (3): 167-191.
- \_\_\_\_\_. 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 (2): 81-117.
- Gaspar, Des. 2005. "Securing Humanity: Situating 'Human Security' as Concept and Discours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 (2): 221-245. <https://doi.org/10.1080/14649880500120558>.
- Gerrard, Michael. 2015. "America's Forgotten Nuclear Waste Dump in the Pacific" 35 (1): 87-97. <https://doi.org/10.7916/D8GM86X6>.
- Giordano, Meredith, Mark Giordano, and Aaron Wolf. 2002. "The Geography of Water Conflict and Cooperation: Internal Pressures and International Manifestations." *The Geographical Journal* 168 (4): 293-312. <https://doi.org/10.1111/j.0016-7398.2002.00057.x>.
- Gleick, Peter H. 1993. "Water and Conflict: Fresh Water Resourc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18 (1): 79-112.
- Græger, Nina. 1996. "Environmental Security?" *Journal of Peace Research* 33 (1): 109-116. <https://doi.org/10.1177/0022343396033001008>.
- Grech-Madin, Charlotte. 2021. "Water and Warfare: The Evolution and Operation of the Water Taboo." *International Security* 45 (4): 84-125. [https://doi.org/10.1162/isec\\_a\\_00404](https://doi.org/10.1162/isec_a_00404).
- Haftendorn, Helga. 2000. "Water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ird World Quarterly* 21 (1): 51-68. <https://doi.org/10.1080/01436590013224>.
- Heo Ji Young. 2021. "Everyday Peace: Bottom-up Peacebuil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3 (2): 79-114. <https://doi.org/10.35369/JPUS.13.2.202112.79>.
- Herrero, Sergio Tirado. 2006. "Desertification and Environmental Security: The Case of Conflicts between Farmers and Herders in the Arid Environments of the Sahel." In *Desertification in the Mediterranean*

- Region: A Security Issue: Proceedings of the NATO Mediterranean Dialogue Workshop, Held in Valencia, Spain, 2-5 December 2003*, edited by William G. Kepner, Jose L. Rubio, David A. Mouat, and Fausto Pedrazzini, 109-132. NATO Security Through Science Series C.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Homer-Dixon, Thomas F. 1991. "On the Threshold: Environmental Changes as Causes of Acute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16 (2): 76. <https://doi.org/10.2307/2539061>.
- Human Security Centre. 2005. *Human Security Report 2005: War and Pea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Ide, Tobias, McKenzie F. Johnson, Jon Barnett, Florian Krampe, Philippe Le Billon, Lucile Maertens, Nina von Uexkull, and Irene Vélez-Torres. 2023. "The Future of Environmental Peace and Conflict Research." *Environmental Politics* 32 (6): 1-27. <https://doi.org/10.1080/09644016.2022.2156174>.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020. "Guidelines on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blog). September 21, 2020. <https://www.icrc.org/en/document/guidelines-protection-natural-environment-armed-conflict-rules-and-recommendations-relating>.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0. "The Central Sahel: Scene of New Climate Wars?" 154. Dakar; Niamey; 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https://www.crisisgroup.org/africa/sahel/b154-le-sahel-central-theatre-des-nouvelles-guerres-climatiques>.
-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Edited by H.-O. Pörtner, D.C. Roberts, M. Tignor, E.S. Poloczanska, K. Mintenbeck, A. Alegría, M. Craig, et al.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London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23. “Annex II: Glossary.” In *Climate Change 2022 –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Working Group II Contribution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st ed.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009325844>.
- Jägerskog, Anders. 2003. “Why States Cooperate over Shared Water: The Water Negotiations in the Jordan River Basin.” Linköping: Linköping Universitet.
- Kaijser, Anna, and Annica Kronsell. 2014. “Climate Change through the Lens of Intersectionality.” *Environmental Politics* 23 (3): 417-33. <https://doi.org/10.1080/09644016.2013.835203>.
- Käkönen, Jyrki. 1994. *Green Security Or Militarized Environment*. Dartmouth.
- Kim, Kyungmee, Emilie Broek, Elizabeth Smith, David Michel, Erwin de Nys, and Nicolas Salazar Godoy. 2021. “Water Cooperation in the Horn of Africa: Addressing Drivers of Conflict and Strengthening Resilience.” SIPRI. <https://www.sipri.org/publications/2021/other-publications/water-cooperation-horn-africa-addressing-drivers-conflict-and-strengthening-resilience>.
- Kim, Kyungmee, Cedric de Coning, Emma Hakala, Tobias Etzold, and Minoo Kofoed. 2024. “The Peace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the Nordic Region.” *Nordic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 109-116.
- Kim, Kyungmee, and Tània Ferré Garcia. 2023. “Climate Change and Violent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5 (4): viad053. <https://doi.org/10.1093/isr/viad053>.
- King, Marcus DuBois. 2015. “The Weaponization of Water in Syria and Iraq.” *The Washington Quarterly* 38 (4): 153-169. <https://doi.org/10.1080/0163660X.2015.1125835>.
- Kliot, N, D Shmueli, and U Shamir. 2001. “Institutions for Management of Transboundary Water Resources: Their Nature, Characteristics and

- Shortcomings.” *Water Policy* 3 (3): 229-255. [https://doi.org/10.1016/S1366-7017\(01\)00008-3](https://doi.org/10.1016/S1366-7017(01)00008-3).
- Kovalenko, Vitaliy, Yuliia Komarynska, Mykhaylo Klymchuk, Oleksandr Pavluk, and Tetiana Korshykova. 2024. “International and National Mechanisms Combating Ecosystems’ Damage and Environmental Crimes to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Grassroots Journal of Natural Resources* 7 (2).
- Krampe, Florian. 2021. “Ownership and Inequalities: Exploring UNEP’s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Peacebuilding Program.” *Sustainability Science*, February. <https://doi.org/10.1007/s11625-021-00926-x>.
- Krampe, Florian, Farah Hegazi, and Stacy D. VanDeveer. 2021. “Sustaining Peace through Better Resource Governance: Three Potential Mechanisms for Environmental Peacebuilding.” *World Development* 144 (August):105508. <https://doi.org/10.1016/j.worlddev.2021.105508>.
- Lee, Jong Ho. 2020.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ransboundary Particulate Matter in Northeast Asia.”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 (3): 117-33. <https://doi.org/10.46416/JKCIA.2020.12.22.3.117>.
- Lossow, Tobias von. 2016. “The Rebirth of Water as a Weapon: IS in Syria and Iraq.” *The International Spectator* 51 (3): 82-99. <https://doi.org/10.1080/03932729.2016.1213063>.
- Man, Lee Gwang, Kang Boosik, and Hong Il-Pyo. 2008. “Cooperative Framework for Conflict Mitigation and Shared Use of South-North Korean Transboundary Rivers.”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28 (5B): 505-514.
- Melcher, Frederic G. 1972. “The Dikes Have Held (For This Year).” *Chicago Review* 24 (2): 96-100. <https://doi.org/10.2307/25294683>.
- Mikulewicz, Michael, Martina Angela Caretta, Farhana Sultana, and Neil J. W. Crawford. 2023. “Intersectionality & Climate Justice: A Call for Synergy in Climate Change Scholarship.” *Environmental Politics*, February, 1-12. <https://doi.org/10.1080/09644016.2023.2172869>.

- Mobjörk, Malin, Florian Krampe, and Kheira Tarif. 2020. “Pathways of Climate Insecurity: Guidance for Policymakers.” Policy Brief. Climate Change and Risks.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Naddaf, Miryam. 2023. “Ukraine Dam Collapse: What Scientists Are Watching.” *Nature* 618 (7965): 440-441. <https://doi.org/10.1038/d41586-023-01928-8>.
- Nagarajan, Chitra, Janani Vivekananda, Binh Pham-Duc, Florence Sylvestre, Benjamin Pohl, and Hector Morales Munoz. 2024. “Peace in an Extreme Climate: How Climate-Related Security Risks Affect Prospects for Stability in Lake Chad.” *PLOS Climate* 3 (10): e0000314. <https://doi.org/10.1371/journal.pclm.0000314>.
- NATO. n.d.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Security.” NATO. Accessed November 1, 2024.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91048.htm](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91048.htm).
- Nicoson, Christie. 2021. “Towards Climate Resilient Peace: An Intersectional and Degrowth Approach.” *Sustainability Science* 16 (4): 1147-1158. <https://doi.org/10.1007/s11625-021-00906-1>.
- Niedenthal, Jack. 2024. “For the Marshall Islands, Nuclear Remembrance Day Is a Painful Remind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rch 1, 2024.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4/03/marshall-islands-nuclear-remembrance-day-painful-reminder>.
- Nordqvist, Pernilla, and Florian Krampe. 2018. “Climate Change and Violent Conflict: Sparse Evidence from South Asia and South East Asia.” 4.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18-09/sipriinsight1804.pdf>.
- Paris, Roland. 2001.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26 (2): 87-102.
- Rieu-Clarke, Alistair, Ruby Moynihan, and Bjørn-Oliver Magsig. 2012. *UN Watercourses Convention: User’s Guide*. IHP-HELP Centre for Water

- Law, Policy and Scienc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Rønnfeldt, Carsten F. 1997. “Three Generations of Environment and Security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34 (4): 473–82. <https://doi.org/10.1177/0022343397034004009>.
- Sadoff, Claudia W., and David Grey. 2002. “Beyond the River: The Benefits of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Rivers.” *Water Policy* 4 (5): 389–403.
- Schwartzstein, Peter. 2023. “A Reminder from Israel and Gaza on the Importance and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Peacebuilding.” *New Security Beat* (blog). October 13, 2023. <https://www.newsecuritybeat.org/2023/10/reminder-israel-gaza-importance-limitations-environmental-peacebuilding/>.
- Selby, Jan. 2005. “The Geopolitics of Water in the Middle East: Fantasies and Realities.” *Third World Quarterly* 26 (2): 329–49. <https://doi.org/10.1080/0143659042000339146>.
- Selby, Jan, Gabrielle Daoust, Anwesha Dutta, Jonathan Kishen Gamu, Esther Marijnen, Ayesha Siddiqi, and Mark Zeitoun. 2024. “The Many Faces of Environmental Security.”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49 (1): 395–418. <https://doi.org/10.1146/annurev-environ-112922-114232>.
- Selby, Jan, and Clemens Hoffmann. 2014. “Beyond Scarcity: Rethinking Water, Climate Change and Conflict in the Sudan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9 (November): 360–370. <https://doi.org/10.1016/j.gloenvcha.2014.01.008>.
- Shumilova, Oleksandra, Klement Tockner, Alexander Sukhodolov, Valentyn Khilchevskiy, Luc De Meester, Sergiy Stepanenko, Ganna Trokhymenko, Juan Antonio Hernández-Agüero, and Peter Gleick. 2023. “Impact of the Russia-Ukraine Armed Conflict on Water Resources and Water Infrastructure.” *Nature Sustainability* 6 (5): 578–586. <https://doi.org/10.1038/s41893-023-01068-x>.
- SIPRI, NUPI. 2022. “Climate, Peace and Security Fact Sheet: South Sudan.”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2. [https://sipri.org/sites/default/files/220422%20NUPI%20Fact%20Sheet%20South%20Sudan\\_FactChange%20LR2.pdf](https://sipri.org/sites/default/files/220422%20NUPI%20Fact%20Sheet%20South%20Sudan_FactChange%20LR2.pdf).
- Sjöstedt, Britta. 2013. "The Role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Armed Conflict: 'Green-Keeping' in Virunga Park. Apply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the Armed Conflic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 (1): 129-153. <https://doi.org/10.1163/15718107-08201007>.
- Smith, Dan, and Rod Schoonover. 2023. "Five Urgent Questions on Ecological Security." SIPRI. <https://www.sipri.org/publications/2023/sipri-insights-peace-and-security/five-urgent-questions-ecological-security>.
- Sodhy, Pamela. 1987. "The Malaysian Connection in the Vietnam War." *Contemporary Southeast Asia* 9 (1): 38-53.
- Starr, Joyce R. 1991. "Water Wars." *Foreign Policy*, no. 82, 17-36.
- Sudilovsky, Dante Leopoldo. 2021. "The Saturated Jungle and The New York Times: Nature, Culture, and the Vietnam War | Department of History." *Princeton Historical Review*, no. 2021-22. <https://history.princeton.edu/undergraduate/princeton-historical-review/2021%E2%80%9322-issue/saturated-jungle-and-new-york-times>.
- Sultana, Farhana. 2020. "Embodied Intersectionalities of Urban Citizenship: Water, Infrastructure, and Gender in the Global South."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10 (5): 1407-1024. <https://doi.org/10.1080/24694452.2020.1715193>.
- Swain, Ashok. 2001. "Water Wars: Fact or Fiction?" *Futures* 33 (8): 769-781.
- Tarif, Kheira, Katongo Seyuba, Anne Funnemark, Elisabeth Rosvold, Asha Ali, Kyungmee Kim, Cedric de Coning, and Florian Krampe. 2023. "Climate, Peace and Security Research Paper: Insights on Climate, Peace and Security." SIPRI. <https://www.sipri.org/publications/2023/partner-publications/climate-peace-and-security-research-paper-insights-cli>

mate-peace-and-security.

- Thomas, Kimberley, and Benjamin P. Warner. 2019. "Weaponiz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57 (July): 101928. <https://doi.org/10.1016/j.gloenvcha.2019.101928>.
- Toset, Hans Petter Wollebæk, Nils Petter Gleditsch, and Håvard Hegre. 2000. "Shared Rivers and Interstate Conflict." *Political Geography* 19 (8): 971-996. [https://doi.org/10.1016/S0962-6298\(00\)00038-X](https://doi.org/10.1016/S0962-6298(00)00038-X).
- UN Development Programme, ed.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reports/255/hdr\\_1994\\_en\\_complete\\_nostats.pdf](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reports/255/hdr_1994_en_complete_nostats.pdf).
- UNHCR. n.d. "Refugee Data Finder." UNHCR. Accessed November 1, 2024. <https://www.unhcr.org/external/component/header>.
- Van Baalen, Sebastian, and Malin Mobjörk. 2018. "Climate Change and Violent Conflict in East Africa: Integrat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to Probe the Mechanism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0 (4): 547-575. <https://doi.org/10.1093/isr/vix043>.
- Veracini, Lorenzo. 2013. "The Other Shift: Settler Colonialism, Israel, and the Occupation."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42 (2): 26-42. <https://doi.org/10.1525/jps.2013.42.2.26>.
- Weinthal, Erika, and Carl Bruch. 2023. "Protecting Nuclear Power Plants during War: Implications from Ukraine." *Environmental Law Reporter* 53 (4): 10285-10297.
- Wolf, Aaron T. 1998. "Conflict and Cooperation along International Waterways." *Water Policy* 1 (2): 251-265.
- Wolf, Aaron T. 1999. "'Water Wars' and Water Reality: Conflict and Cooperation along International Waterways." In *Environmental Change, Adaptation, and Security*, 251-265. Springer.
- Yoffe, Shim, Aaron T. Wolf, and Mark Giordano. 2003. "Conflict and Cooperation over International Freshwater Resources: Indicators of Basins at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39 (5): 1109-1126. <https://doi.org/10.1111/j.1752-1688.2003.tb03696.x>.
- Zierler, David. 2011. *The Invention of Ecocide: Agent Orange, Vietnam, and the Scientists Who Changed the Way We Think about the Environment*.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Zittis, George, Panos Hadjinicolaou, Mansour Almazroui, Edoardo Bucchignani, Fatima Driouech, Khalid El Rhaz, Levent Kurnaz, et al. 2021. “Business-as-Usual Will Lead to Super and Ultra-Extreme Heatwav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Npj Climate and Atmospheric Science* 4 (1): 20. <https://doi.org/10.1038/s41612-021-00178-7>.
- 국립기상과학원. 2012.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11-1360000-000861-01. 서울: 기상청. [http://www.nims.go.kr/?sub\\_num=1171](http://www.nims.go.kr/?sub_num=1171).
- 문예찬. 2023.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Korea and Global Affairs* 7 (1): 105-125. <https://doi.org/10.22718/KGA.2023.7.1.005>.
- 백환기. 2000. “고엽제(枯葉劑) 피해(被害) 범위(範圍) 인정(認定)의 확대경향(擴大傾向)에 따른 정책(政策) - 보건사회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SS.” *보건사회연구* 20 (1): 23-58.
- 손기웅. 2006.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13. “DMZ세계평화공원 추진방향.” *JPI PeaceNet* 23 (2): 129-143.
- 오삼언 and 박소영. 2022. “북한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현대북한연구* 25 (3): 181-223. <https://doi.org/10.17321/RNKS.2022.25.3.005>.

## Abstract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Environment-Peace Nexus

Kim, Kyungmee\*

The linkage between peace and the environment is evident; both severe environmental issues and violent conflicts, such as war, undermine dignified and secure living conditions.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environment-peace nexus, a bi-directional and multi-scalar concept that connects these two domains since the World War II. Due to the recent outbreak of wars in Europe and Middle East, the environment and peace nexus is evolving again, though much of the conceptual development has been shaped by historical events. Nuclear testing and proliferation, ecocide during the Vietnam War, and militarization during the Cold War have shaped how peace research approaches environmental issues. Securitizing and de-securitizing the policy discourse emerged subsequently. With Russia's invasion of Ukraine leading to a large-scale war in Europe and Hamas' airstrikes on Israel triggering a new Middle Eastern conflict, massive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war is increasing interest in ecocide. Looking ahead, the need for peacebuilding to prevent future conflicts driven by climate change is increasingly recognized, with the potential of climate action's contribution to peacebuilding.

**Key Words:** Environment-peace nexus, climate change, ecocide, environmental peacebuilding, sustainable development

논문투고일: 2024. 11. 06.

논문심사일: 2024. 11. 15.

게재확정일: 2024. 11. 27.

\*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Uppsala University. Kyungmee.kim@pcr.uu.se

